

인권단체를 여러 필요.

결의가 중요하다.

- 온라인. 현장 선
- 즉언론동원 중요.
- 2차대방망이질들, 통합필요 (양보세움 자 싸움)

인권의 힘으로 단결  
- 운동권과 시민권  
거리 편은!

인권단체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래는 약력 2차방 필 요)

최근에 대한 해박이 든다.  
#현재 파병철회운동은 소강기에 접어 들고 있다. 10일 집회에 약 1000명의 인파가 모여 경찰과 충돌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날이 갈수록 그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파병재검토 결의안 상정(15), 부산항 군수물자 수송(?), 청와대 인간띠 잇기(23) 총궐기(24) 등의 일정이 있다.

#13일 오전 사랑방에서 인권단체 비상회의 개최

#인권단체들 무엇을 해야하는가?

->파병철회운동이 대중동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는바 선전을 통해 대중을 거리로 나오게 하거나 상징적인 선도투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대중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단체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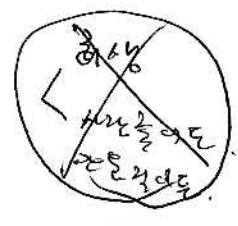
->파병철회운동에서 전체 인권단체들의 결속이 약하고 일부 단체들의 결의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신사적인 그 특성상 유인물 거리선전 등 각종의 선전을 통해 대중선전을 할 수 있고, 결의가 되는 몇몇 단체들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의 모처를 점거해 '인권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즉, 1)선전과 2)국회타격

1)선전은 인터넷 선전: 짧고 간결한 파병반대 문건이 필요하다.

-거리 유인물: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2)국회타격: 천정배 의원실을 타겟으로 14일 오전 정장을 입고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플래카드를 내리고, 의원실을 점거한다.



->5명. 10명씩  
거처를 세는 민변

#왜 국회 점거투쟁이 필요한가?

->현 상황에서 거리의 동력은 날로 약화되고, 군수물자 수송, 선발대 출발 등 파병의 절차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대중들의 호소나 청원에 귀 기울여라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 파병을 막는 길은 노무현을 위협하고 압박해서 정부차원에서 파병철회를 쟁취하거나 국회의 파병재검토안을 가결시켜서 국회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뿐이다. 이 두 방법 모두 매우 힘든 과정이나,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힘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좌파 단위에서 '노무현 퇴진'을 외치고는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퇴진구호로는 노무현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공건물이 파괴되고, 폭동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부안을 되새겨보라!) 즉, 국회차원에서 파병에 제동을 거는 것이 현시점에서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낮아 보일지라도 국회를 압박하고 파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압박해 재검토안 가결을 얻어내야 한다. 국회점거투쟁은 현시점의 가능한 투쟁방법 선택지 중에서 (상대적으로)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쟁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또한, 한총련이 국회를 점거하는 것과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다르다. 인권단체들은 나름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목표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천정배 의원실이 되어야 한다. 천정배는 인권변호사출신이고, 파반수 여당의 원내대표이며, 불과 얼마전까지 파병을

- 2차대방망이질

리사남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해왔다. 언론에 노출될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점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14일 들어가서 15일 저녁 혹은 16일 풀면 된다.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더이상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점거를 풀고 나와서 다른 방법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국회점거투쟁에 대한 조직적인 판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